3.1운동 백주년 기념

‘우리 겨레 십자가의 길’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며

2019년은 우리 겨레가 3.1 운동 독립항쟁을 시작한지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이 나라를 강압적으로 합방한 일본제국에 대한 우리 겨레 전체의 봉기였습니다. 온 백성이 일본제국을 향해서는 한 마음으로 민족자결과 저항의 의지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는 인류평등의 큰 진리를 천명한 거사였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조정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권력암투로 외세를 이 땅에 끌어들여 국권을 찬탈 당하였습니다. 이에 나라를 사취당하고 땅을 강탈당한 이 땅의 민초들이 나라를 되찾자고 봉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펼치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존엄을 외쳤습니다. 학생, 교사, 주부, 간호사, 기생, 변호사, 시장 상인, 공무원, 군인, 해녀 등 모든 계층, 모든 직종의 남녀노소 시민들이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맞서 궐기하였습니다. 이 땅의 역사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시민이 들고 일어나 불의한 권력의 억압에 저항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거사는 이 나라 현대사의 힘찬 탈출기였습니다. 1919년 3월의 거사야말로 이 나라 국민들이 지난 100년 동안 모든 불의한 권력의 압제와 차별의 굴레로부터 탈출하여 자유와 평등을 얻고, 정의롭고 평

화로운 세상을 향해 험난하고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혁명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여러 외세의 침략과 개입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민족적 신원과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며 나라 안의 불의한 권력의 횡포와 독재적 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올 수 있었던 것은 3.1 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마그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혼에 이 불덩어리를 심어 주시고 지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진리와 정의를 향한 열정을 북돋아주신 하느님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 하느님께서는 나라와 땅을 빼앗기고 타국의 종살이를 하며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겪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외세에 의한 국토의 분단이라는 새로운 질곡을 가져왔고, 갑자기 도래한 해방과 분단으로 이 민족은 지난 70년 동안 서로 이념갈등과 반목에 사로잡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형제를 이적세력으로 단죄하고 도륙하는데 광분하는 광야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반하시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서로를 적으로 단죄하고 반목하던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평화의 세기로 넘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지난 죄과와 얼룩을 씻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이 땅의 많은 형제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의

를 위해 봉기하고 싸움으로써 불의한 권력의 약탈, 탄압, 사찰, 구금, 고문, 징용, 학살, 추방, 토벌, 수형과 단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상처받아 쓰러져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곁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읽지 못하고, 불의한 현실에 순응하고, 악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며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동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회와 회개의 사순시기를 맞아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 겨레에게 지난 세기의 한국교회의 죄과와 부족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단과 분쟁의 광야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열심히 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해를 그리스도의 평화로 넘어가는 파스카 고개로 지내기 위하여 교구민 모두 기회 닿을 때마다, 특히 사순절 동안 '우리 겨레의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바치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1일

천주교 제주교구

감목 **강우일**

+ 주 예수님,

●오늘 저희는 100년 전 온 겨레가 타국의 불의한 폭압에 저항하여 봉기한 3.1 운동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부당한 권력의 억압과 수탈에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과 인간평등을 만방에 외칠 신념과 용기를 겨레의 선각자들에게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겨레는 지난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여도 3.1 운동의 역사적 동력에 힘입어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며 싸움을 이어간 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오늘 저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 고난의 여정에서 때로는 숨거나 비켜서서, 쓰러진 형제들을 돌보지도, 함께 아파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용렬함과 무심함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희의 옹졸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소서! 고통 받는 모든 이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3.1 운동 선각자들의 영혼에 당신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을 저희에게도 보내주소서! 아직 저희 겨레는 이념과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고통 받는 형제들 안에서 수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제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나 겨레와 국토를 유린하였습니다.
조선의 힘없는 농민들은 오랫동안 부패한 관리들의 탐학과 횡포에 짓밟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봉기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청과 일본의 군대를 번갈아 끌어들이고 온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는 농민군을 땅 끝까지 추격하고 공격하고, 이 땅의 가난한 농민 3만여 명이 권력자들과 외국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였습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은 권력 다툼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민초들은 부패한 정권과 외국 군대의 폭력에 무참히 희생당하고 쓰러져갔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10년 8월29일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겨레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제국은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색출, 제거하였습니다. 국토의 토지조사를 통한 토지 침탈이 시작되고 식량과 물자는 헐값으로 일본으로 유출되어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갔습니다. 땅을 빼앗겨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중국, 러시아, 하와이, 중남미로 흩어져 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랑민들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차별과 중노동의 십자가를 지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19년 3월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민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펼치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존엄을 외쳤습니다. 장터에서, 공원에서, 교회에서, 사찰에서, 모든 계층과 직업의 시민들이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맞서 여러 달을 두고 끊임없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궐기하였습니다. 학생, 교사, 주부, 간호사, 기생, 변호사, 상인, 공무원, 군인, 해녀들이 일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구타와 투옥, 고문과 처형으로 넘어지고 스러져가면서도 그들은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후 일본제국은 100만이 넘는 우리국민을 강제노역과 종군위안부로 동원하였습니다.
전쟁이 심해지자 일본은 일본 전국의 탄광, 건설현장, 공장 등에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차출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한 보수도 없이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며,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무참히 짓밟히고, 몸과 영혼에 회복할 수 없는 치욕과 상처가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생존자들은 회한과 울분 속에 눈물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47년 3월1일 3만여 명의 제주 시민들이 북초등학교에 모이고 4.3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이 땅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구도에 편입되어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라 전체가 처절한 좌우 이념 갈등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해방 후 제주는 귀향민 급증으로 식량난, 취업난을 겪으며 경제파탄 상황을 맞았고, 민생고로 힘들어하며 3.1절 기념식에 모여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니 6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대대적인 책임자 색출과 체포가 이어지고, 폭행과 고문이 자행됨으로써 도민 전체가 총파업에 참여하며 미군정에 대한 비폭력 저항에 동참하였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48년 10월19일 여순 봉기가 발발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14연대에 제주도로 출동, 4.3 사태를 일으킨 무장 세력을 토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19일 14연대의 병사들은 동족 형제를 죽이는 일에 출동할 수는 없다고 봉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여수 순천 지역에 11개 대대의 진압군을 급파하고 봉기한 14연대 병사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니 봉기는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수 순천 지역 수천여 명의 무고한 일반주민들이 봉기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국가는 아무런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이 무고한 죽음을 70년 동안 침묵과 망각 속에 묻어왔습니다. 오늘도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들의 상처에는 출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48년 11월21일 제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 이상 들어간 지역 통행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대규모 토벌작전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며 주민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 학살하였습니다. 해안마을에 소개한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 폭도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조국을 외세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외세가 제공한 가공할 무기를 총동원하여 동포와의 살육전을 벌였습니다.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양측 모두 군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는 멈추었어도 상처와 대결, 원한과 증오는 배가하고, 오늘 남북에 쌓아놓은 무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가공할 살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평화는 오지 않고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은 아련한 부모형제의 얼굴을 가슴에 묻고 그리움에 사무친 한 많은 나날을 살아갑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60년 4월19일 4.19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항의하여 궐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며 강경진압에 나섰고, 7명이 사망, 8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 시위에 참가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얼굴에 최루탄 박힌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이는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4월19일 서울 경무대 앞에는 수많은 대학생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경찰은 또 다시 시위 군중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 21명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고, 17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잔혹한 폭력은 공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엿새 후 대통령은 하야,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친 학생들의 정의로운 힘이 부패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61년 5월16일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였습니다.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제2공화국 시대를 맞았으나, 새로운 시대의 빗발치는 국민의 여망과 요구에 새 정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1년도 채 못 되어 총과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택으로 구성된 정부였지만, 군인들의 무력 쿠데타에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정치인들을 구악에 물든 부패 세력이라고 단죄하고 심판하였지만, 정권을 장악한 그들은 국가 권력과 모든 이권을 독점하며 위협과 공포의 정보정치를 펼치고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민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을 박탈당하고 두려움과 굴종의 군사문화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65년 이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타국에 군대를 파병, 참전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 다른 나라 침략에 시달리고 고통 받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가 타국에 쳐들어가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우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고 우리 군인들이 타국에서 죽고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 여러 마을 주민들은 혈육을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전쟁의 고통을 온 몸으로 기억하며 지금도 눈물 속에 물음을 던집니다. 왜 비무장의 노인과 여성, 어린이까지 무참히 죽여야 했냐고. 참전한 이들도 귀국 후 오랜 세월을 두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상처에 시달리고 신음합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80년 5월18일 5.18 민중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권력공백기가 찾아오자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제2의 군사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공포, 국회를 봉쇄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 수 천 명을 감금하며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발동, 언론 보도검열'을 강화하자,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일제히 봉기하고 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 장악에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군부는 시위진압 집중훈련을 받은 계엄군을 출동시켜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10일에 걸친 시민들의 시위와 저항의 결과 166명이 거리에서 살해되고 376명이 이어서 훗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 천 명이 중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수 십 명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한 대재앙이 자행되었습니다. 군부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봉기한 수많은 의인들이 권력을 탐하는 죄인들에 의해 극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1987년 6월10일 6월 민중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 권력기구로 국가법체계를 왜곡,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급조된 꼭두각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군부의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투표권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학생들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에 지속적으로 저항,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정부는 원천봉쇄로 대응했으나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6월 민주항쟁의 불길 앞에 공권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2016년 10월 시민들의 촛불이 무수히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이나 되는 승객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국가의 통수권이 법과 규범에 의하여 신속히 작동하지 않음을 보고 온 나라가 경악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최고기구가 극소수의 이해관계 속에 움직이고 국가 권력이 개인 친분 관계로 남용되고 뒤틀리니 마치 국가가 바다 밑 어둠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위기 같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시민이 분노하며 이 어둠을 물리치고자 촛불을 밝혀들었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처음으로 2백만 넘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6개월 동안 밤거리를 촛불로 밝히며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잠깐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마침기도

+주 예수님,
●우리 겨레가 걸어온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역사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
저희 모두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복된 낙원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